2026년 전북도민체전 준비 박차

진안군, TF팀 신설…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 본격 준비 나서

진안군이 2026년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TF팀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신설된 조직으로, 현재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배치돼 있으며, 향후 2명을 추가로 충원해 총 5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진안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로, 군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운영을 통해 전북도민을 맞이하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며 도민 화합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TF팀은 우선 대회 종합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대회 상징물 공모를 통해 체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함께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준비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체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종목별 경기장 정보는 물론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를 안내함으로써 참가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TF 신설을 시작으로 2026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며, "진안군 최초로 열리는 체전이 전북자치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지난 16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빗물받이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요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나서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산사태 취약지 등 피해우려지역 점검

장수군은 지난 16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빗물받이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주요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많은 강수량이 예보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장수 관내 빗물받이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빗물받이 청소상태, 산사태 취약지역 내 주민 긴급대피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 집중호우 대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번암면 대론리 및 사암리 산사태 취약지역은 과거 2019년 및 2023년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으로, 현재는 사방댐 등 복구사업을 통해 관련 시설이 정비된 상태다. 군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정우 부군수는 관내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부서에 사전점검과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우 부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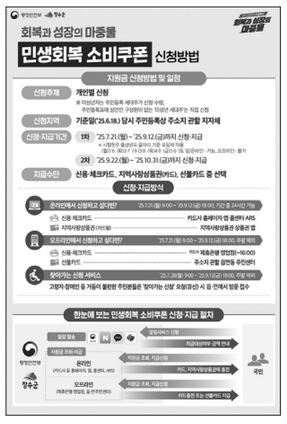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장수군,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장수군은 오는 21일부터 전 군민에게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1차 지급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수급자 4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게 9월 22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중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에서 장수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중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 선불카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불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선불카드 대리 신청은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장수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유흥업소·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는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급과 철저한 운영으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전문가 초청 간담회 열고 귀농·귀촌 경쟁력 모색

무주군은 지난 16일 무주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현황을 살펴 강점과 약점을 분석·보완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 경쟁력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최민규 농촌공간 대표를 비롯한 무주군과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1~2년간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실질적인 수요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귀농과 귀촌을 구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협업을 통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한 △무주군 중장기 정책으로 여성 귀농·귀촌인 급증 추세를 고려한 1인 여성 귀농·귀촌 지원 정책 개발, △중장년층 지원 확대, △마을 중심의 귀농·귀촌 체험 개발·지원 등 방향성이 담긴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외에도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의 발굴·확대, △체류형 쉼터 확대, △무주형 '살아보기', '귀농의 집 조성 사업' 등 현재 시행 중인 것을 무주 실정에 맞게 전환·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한마음가족대회 성료

제37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한마음가족대회가 17일 무주읍 당산리 무주수련원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무주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젊은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회원과 가족, 유관기관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회원 표창, 축사 및 격려사,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박천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장은 "서로의 땀과 노력을 응원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농업인이 되자"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촌의 중심에서 책임을 다하자"라고 의지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읍 김영태 회원, 무풍면 김효진 회원, 적상면 박희용 회원, 안성면 정종혁 회원이 무주농업 발전과 후계 농업인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설천면 송병준 회원과 부남면 김길환 회원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무주 농업을 이끌어가는 후계농업인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어려움과 변화의 폭을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상 상견례 가져

장수군이 지난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2025년도 장수군 공무직 노조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협상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장수군 류지봉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군측 교섭위원 5명과 윤동수 장수군공무직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측 교섭위원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교섭대표 인사말, 노조 측 요구안 설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수군 교섭대표인 류지봉 행정복지국장은 "노사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모색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동수 장수군공무직노조 지부장도 "이번 교섭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합리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자"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시스템 운영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최근 소방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가와 이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무주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소방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시간 소방안전교육 신청과 일정 확인은 무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진행 할 수 있으며, 교육 희망자가 교육 종류와 인원을 입력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예약과 관련한 접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끌어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